

## MS그룹 컨소시엄, GM군산공장 '새 주인'

자동차 부품기업 명신 등  
도·군산시와 인수 협약

▶ 관련기사 3편

전북도는 지난 29일 자동차 부품기업인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을 중심으로 건설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GM과 인수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은 GM군산공장 인수 및 초기생산시설 등 2,000억을 투자하여 앞으로 약 9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해(직접 고용 900명, 간접고용 2,000명 이상 효과 예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초기 전기차 위탁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5년내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북지역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은 공장 정비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는 연간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 15만대까지 전기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컨소시엄 중심기업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은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계열순위 300위권의 중견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현대 기아차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GM군산공장 인수로, 안정적인 매출확보와 수익성 증가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한국GM 군산공장 매각 관련 기자회견이 지난 2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 의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기생산시설 등 2000억 투자 900여명 인력 고용  
전기차 위탁 생산 시작 향후 5년내 자체 모델 개발  
안정적 매출확보·수익성 증가 등 지속 성장 예상

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국내 차체 제작 분야의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의 GM군산공장 인수를 놓고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도정 성장전략 목표와도 부합해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산업 고용 위기지역 지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요청, 그 결과 지난해 5월 산업부에서 GM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GM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여 GM 배리앵글 사장의 군산공장 활용방안 조기 마련에 대한 약속

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GM과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의 이번 계약은 송하진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전북도는 이번 인수 계약 체결로 지난 2017년 7월 1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5월 31일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의 기업안정화를 통한 조기 정착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도-군산시-기업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촉진

형 상생일자리 창출에도 폭 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산업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국내의 경제상황에서 전북에 투자를 결정한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 대표님과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문재인대통령과 산업부 관계자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 업체가 이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투자촉진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시, 이달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저출산 시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돼왔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 인정액 초과 등의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기존 수급 가구 또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단, 같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아동은 3월 말까지 미입국시 직권 신청이 제외되며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 '꿈 이뤘다'

교육부 심사서 최종 선정... 신입생 정원 30명 2020학년도부터 편입 통해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약학대학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전북대는 지난 29일 본관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발표된 교육부 1차 심사와 이어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심사대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약학대학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편>

전북대는 16개 단과대학과 전북대병원을 아우르는 인프라로 바이오식품 소재 특성에 최적화 대학이다. 이에 산업약사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상약사 배출을 통한 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북대의 탄탄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전북대 약학대학은 인류 건강을 지향하고 글로벌 약학 허브 조성을 목표로 일본 동경 대학, 미국 플로리다 약대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화 산업약사를 육성하고, 더불어 연구력 갖춘 임상약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약학대학유치추진단 채한정 단장은 "전북대학교 약대 유치가 많은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이번 약대 유치에 이

어 약사회의 문턱을 넘고 소통해야 함에 있어 약사회를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약학대학 유치는 바이오 산업의 전초기지로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약개발에 나설 것이며, 2014년부터 연구융합 중심의 약학대학 유치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온 이남호 전 총장을 비롯한 전임자들의 물심양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 약학대학 신입생 정원은 30명으로 2020학년도 입시부터 편입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6년제에 개편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통해 선발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약대 유치 최종 확정 기자회견이 지난 29일 전북대학교 본관 8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채한정 약학대학유치추진단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